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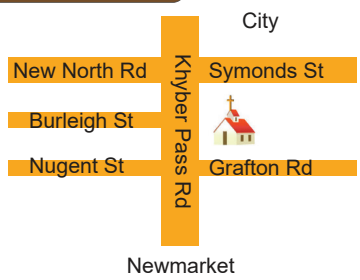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예배 후 8월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3시 15분).
2. 기도와 예배 참석에 더욱 열심을 내며 말씀에 우선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3.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찬송, 기도, 안건토의).
4.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영아부 자모들 모임이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5. 새로 사용하게 된 공간에 어울리는 좋은 이름을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당선작에 선물드립니다)
6. 이태한 목사는 1기 담임사역 7년을 마치고 9월 12일부터 3개월간 안식월을 갖고 2기 사역을 위한 준비와 재충전을 하고 12월에 돌아옵니다.
7. 금요 저녁기도회가 9일(금)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이번 주 금요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8. 해외한인 장로회 뉴질랜드 노회가 오는 9월 8일(목) 오전 10시30분 하늘 그림 교회당에서 있습니다(장로총대: 시무장로, 이광희, 현석호 장로).
9. 노회주간 연합예배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일시:2016년 9월 14일 오후 7시30분 장소:임마누엘 교회당 설교자:유영기 목사 (KPCA총회장, 나성북부교회)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주일 PM 1:00
- 청년모임 주일 PM 3:00
-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 아동부 주일 PM 1:00
- 중고등부 주일 PM 1:00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 이 태 한
- 부 목 사 : 심 창 진
- 부 목 사 : 이 성 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8권 36호
2016년 9월 4일 주일

2016년 표어

거룩 (롬12:1)
부흥 (마5:8)
나눔 (잠11:24,25)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담임/목사
이태한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 예배로 부름 시편 113:1-3

◎ 찬 송 찬송하는 소리 있어 19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람 365장

대표기도 고성일 장로

성경봉독 마가복음 1:15

찬양대 찬양 만국의 왕/
나무집자가 찬양대

설 교 하나님 나라/
이성철 목사

찬 송 내 영혼이 은총입어 438장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계신 주(1,2절)

◎ 축 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모임

오후 3시

소그룹 나눔과
성경공부

기도 / 이예찬 형제

수요 예배

찬양 수요 찬양단

기도 이옥화 집사

성경봉독 느헤미아 4:1-20

설교 성벽재건의 외적인
방해/이성철 목사

광고 인도자

찬송 세상의유혹 시험이

주기도 다같이

9월 교회일지

금요저녁기도회: 9월 9일(금요일)
성찬주일: 9월 25일(주일)
공동체주관예배: 9월 28일(수요일)

예 배 안 내: 박병민/심경순
새신자안내: 박혜숙/이정인
최희숙/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윤경례/박제란
김명옥/유현남
민경아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이기중 권사
다음 주일: 김철재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홍진비 자매
9월 14일 수요: 이정인 집사
9월 14일 애찬: 김은희 집사
9월 18일 주일: 박덕철 장로
9월 18일 청년부: 조주찬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히 부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2. 새로 허락된 장소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양적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도록.
3. 신앙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하지 않는 성도, 삶의 여러 난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선교란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 소식입니다.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리오며 먼저, 창립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다니 듣기만 해도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곳에 있는 같은 교단의 이민교회를 통해 같보리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오른팔 같은 사역자이자,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부부를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휴가를 주었습니다. 9월 12일 2기 유치원개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쉬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부부가 저희와 함께 같은 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잘해주자' 아내의 마음입니다.

저마다 도시로 도시로 물질을 따라, 쾌적한 환경을 따라가는 젊은이들인데 시골구석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않겠쥬. 제마음도 그러한데.. 생명나무 센터 안에 유치원이 들어서고 지난 5월말 임시로 1기 유치원 개원을 해서 13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오는 9월 12일 정식으로 2기 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현재 1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토록 필요했던 창고도 짓는 중입니다.

창고가 끝날 때 쯤이면, 작은 규모의 놀이터도 지어볼 생각입니다. 센터 안에 하나 둘 자리를 잡다 보니 넓어 보이던 땅도 금새 좁게 느껴집니다. 센터에서 14km 떨어진 생명나무장로교회는 평안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민목회처럼, 잘 목회해야겠는데 제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교우들이 잘 따라 주어서 감사합니다.

유치원 교사부부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희 부부가 휴가를 다녀오려 합니다. 캄보디아 동북부나 서북부지역을 돌아볼까 생각 만하고 있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던 선교사님들을 만나 재회의 기쁨도 나누고 자연 속에서 힐링을 얻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온 성도들과 목사님 가족들 모두 강건과 평안하심을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그 마음과 사랑에 고개 숙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형식,이은주(예나, 솔, 송, 샘) 선교사배상

기도제목

1. 사역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기쁨이 항상 충만하도록.
2. 생명나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 하도록.
3.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세워진 동역자들이 점점 헌신되어 가도록.